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사회탐구(윤리와 사상) 영역 분석

1. 출제 경향

*** 출제 경향 특징**

1. 전체적으로 단원별로 고루 출제되었으며, 여전히 서양과 동양 및 한국 사상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2. 단순히 개념과 원리를 묻는 문제보다는 윤리적 이해력과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주로 출제되었다.
3. 다양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비교 이해하고 분석하는 문항도 여전히 많이 출제되었다.
4. EBS 교재와의 연계를 실감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EBS 교재와의 체감 연계율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사탐 영역의 윤리와 사상 과목 출제 경향을 살펴보면 난이도의 경우 지난 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좀 어려운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하지만 재수생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가 덜된 재학생들의 경우에는 2번의 교육청 학력평가에 비해 실제 체감 난이도는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윤리와 사상은 다른 사탐 과목과는 다르게 단순히 개념과 원리만을 알아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력을 얼마나 충분히 가졌느냐에 따라 개별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는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월 모의평가의 경우 기존처럼 단원별 안배는 잘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동양과 한국, 서양 윤리 사상에 대한 출제 비중이 대단히 높다는 점과 사회사상 부분이 출제 빈도는 높지 않지만, 대체로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이 많이 출제된다는 점은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할 때 참고해야 할 점으로 보인다.**

문항의 유형은 기존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기존에 출제되어 왔던 익숙한 문제 유형들로 구성되었다. 기존에 많이 출제되어 왔던 유형인 서술형 평가, 가상 대화, 가상 편지, 퍼즐 문제, 순서도 문제, 세트형 문제 등이 출제되어 학생들에게 많이 익숙한 문항의 유형이었을 것이다. 합답형 문항도 5문항이 출제되면서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부정형 문항은 2문항으로 기존 모의평가나 수능에 비해 다소 적은 것이 특징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에 충실하게 중요한 사상가들의 입장을 확인하는 문제들과 윤리와 사상 과목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들이 평가요소로 활용되어 양질의 문항들로 구성되었다고 생각된다.

EBS 교재와의 연계는 70%로 적절한 연계율로 보인다. 개념 원리 활용, 자료 및 지문 활용, 문항의 축소 확대 변형 등을 통해 EBS 연계 교재를 문항을 구성하는데 다양하게 활용하였다. 따라서 EBS 교재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체감 연계율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 난이도

※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2017학년도 수능과의 시험 체감 난이도 비교

영역	2016년 6월 시행 모의평가 비교	2017학년도 수능 비교
윤리와 사상	비슷	비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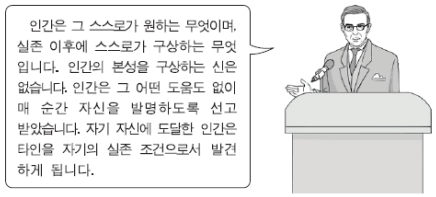
윤리와 사상의 경우 2017학년도 수능과 2016년 6월 시행된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난이도로 출제되었다. 대체로 무난한 문항들도 많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 제시문이 어려운 고난도 문항을 3~4 문항 정도 배치시킨 것으로 보인다.** 대체로 동양, 서양, 사회사상 각 영역별로 고난이도 문항을 균형 있게 배치해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 8번 문항 같은 경우 학생들이 체감적으로 제시문을 분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양지라는 표현 때문에 학생들이 양명학으로 오해할 수도 있는 제시문이었다. 양지의 개념은 성리학과 양명학에서 모두 나올 수 있는 개념이라는 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다. 또한 19번 문항 같은 경우는 롤스와 왈처의 사상을 묻는 문제인데, 롤스의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의 관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문제였으며, 또한 왈처의 정의관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왈처에 대해 공부가 부족한 학생들은 대단히 어렵게 느꼈을 것이다.

3. EBS 교재와의 연계 분석

문항 번호	EBS 교재 연계 내용
	교재명/쪽수/문항번호(내용요소)
1	수능 특강/p.137/8번
2	수능 특강/p.112/5번
5	수능 특강/p.99/6번, 7번
6	수능 특강/p.27/2번
7	수능 특강/p.50/3번
9	수능 특강/p.187/7번
12	수능 특강/p.112/2번, p.188/2번
13	수능 특강/p.127/5번
14	수능 특강/p.113/3번
16	수능 특강/p.151/3번
17	수능 특강/p.55/7번
18	수능 특강/p.161/5번
19	수능 특강/p.177/6번
20	수능 특강/p.79/7번

4. 대표 연계 문항

6월 모의평가 문항 1번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137쪽 8번
1. 그림의 강연자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간은 그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며,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구상하는 신은 없습니다. 인간은 그 어떤 도움도 없이 매 순간 자신을 발명하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도달한 인간은 타인을 자기의 실존 조건으로서 발견하게 됩니다. ① 규범의 속박에서 벗어나 타고난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른다. ② 사회적 삶을 거부하고 주체적으로 설정한 원칙에 따라 행위한다. ③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④ 감정과 욕망을 배제하고 언제 어디서나 보편적인 규범을 지킨다. ⑤ 절대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의 명령을 따르기로 결단을 한다.	[7012-0170] **08**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가 제시한 바람직한 삶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신이 없다고 한다면, 실존이 본질에 앞서는 어떤 한 존재, 정의될 수 있기 이전에 실존하는 어떤 한 존재가 있어야 한다.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먼저 실존하고 그 이후에 정의되는 것이다. …(중략)… 인간은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구상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또한 실존 이후에 스스로가 원하는 무엇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 스스로가 자기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①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그것에 책임을 진다. ② 세상만사의 필연성을 깨닫고 운명에 순응한다. ③ 공적 삶에서 벗어나 은둔 생활을 하며 수양한다. ④ 인간의 본성인 이성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⑤ 허무를 극복하기 위해 초월적인 절대자에게 귀의한다.

6월 모의평가 문항 19번	EBS 수능특강 윤리와 사상 177쪽 6번
19.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할 때, A~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모든 사회적 기본 가치가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만일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함으로써 가장 불운한 계층의 처지가 최초 상태에 비해 개선된다면, 그러한 불평등은 정의에 부합한다. 을: 모든 것이 매매되고 모두가 같은 양의 돈을 갖는 최초 상태가 있다고 하자. 이러한 단순 평등 상태는 자유로운 교환으로 결국 불평등해지므로, 사회적 가치들이 고유한 영역들을 갖는 복합 평등 상태가 정의에 부합한다. (나) 갑, 을 사상가의 입장을 탐구한다. (범 례)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 A / 아니요 / 예 / B / C / 예 / 예 / 갑의 입장 / 을의 입장 〈보 기〉 ㄱ. A: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최초 상황에서 도출되어야 하는가? ㄴ. B: 정의의 제2원칙은 제1원칙의 위반을 교정하는 원칙인가? ㄷ. C: 분배적 정의와 관련되는 모든 가치들은 사회적 가치들인가? ㄹ. C: 정의의 세분화된 영역들을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해야 하는가?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6** 갑, 을은 현대 서양 사상가들이다. 이들이 서로에게 제기할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되므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유사한 상황에 처하게 되므로 아무도 자신에게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을: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은 상이한 근거들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들이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이해들은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① 갑이 을에게: 경제 영역에서 성공했다는 이유로 정치권력까지 장악해서는 안 된다. ② 갑이 을에게: 타고난 자질과 그로 인한 소유물은 모두 자신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정의의 각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가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④ 을이 갑에게: 정의의 원칙이 비현실적인 가상의 상황에서 도출되어서는 안 된다. ⑤ 을이 갑에게: 어떤 사회에서도 적용되는 보편타당한 정의의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

5. 2017학년도 수능 마무리 학습 전략

수능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평가원 시행 모의평가를 정리해 보면 올 해 수능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자신의 수준에 맞는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1) 상위권 학습 전략

상위권 학생들은 어떤 단원에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를 잘 파악하고 대비를 해야 한다. 대체로 상위권 학생들이 사회사상 부분은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회 사상도 깊이 있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고득점을 맞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틀렸던 문항에 대해 정확한 오답을 하면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중·하위권 학습 전략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EBS 수능특강 교재와 앞으로 나올 EBS 수능 완성 교재를 중심으로 사상가들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정확히 먼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후에 기출 문제 등을 풀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면서 다양한 문항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